

리스크 관리·외형성장 ‘투 트랙’... 국내 10호 종투사 도전

CEO 리서치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대신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오 대표는 리스크 관리와 외형 성장에 집중하면서 회사를 성장 궤도에 올려놓는 한편 이번에는 종투사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 대신증권의 40년 산증인... 탁월한 리스크관리

1987년 대신증권에 입사한 오익근 대표는 40년 가까이 한 길을 걸은 ‘원조 대신맨’이다. 인사부장, 재무관리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 등을 거쳐 대신저축은행 대표와 대신증권 부사장을 역임한 뒤 2020년 3월 대신증권 대표에 올랐다. 회사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타격을 입어 어려움에 빠져있을 때 대표로 취임한 그는 리스크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되찾는데 집중했다. 우선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발표하는 등 사적화해를 통해 피해 수습에 나섰다. 이후 그는 2021년 8월, 금융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80% 배상안을 수용하며 분쟁조정 최대 수준의 배상을 결정했다.

40년 ‘원조 대신맨’... 신뢰 중시 라임사태 당시 최대수준 배상 결정 금융 상품 내부통제·사후관리 강화

금융 상품과 서비스 등에서도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조직을 바꾸었다. 오 대표는 2020년 6월 말 금융 소비자보호총괄(CCO)과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융상품 내부통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한 모든 금융상품을 점검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고객패널과 고객만족도조사, 고객의 소리(VOC) 등의 제도를 시행했다. 특히 민원 처리와 구제 절차,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까지 한 번에 진행되는 ‘대신민원관리시스템’도 도입했다.

◆ 고금리, 부동산 PF 위기 속 빛난 대신증권 실적

최근 리스크관리와 함께 리테일 사업 등에 중점을 둔 오 대표의 리더십은 단연 돋보였다. 지난해 고금리와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부실 등으로 대부분의 중소형 증권사가 실적 부진을 겪은 데 반해 대신증권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 6856억원, 당기순이익 6881억원을 달성, 전년 대비 각각 671.2%, 695.5% 증가했다.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면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가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서도 리테일과 투자은행(IB), 트레이딩 부문의 사업 등을 강화한 경영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특히 대신증권은 지난해 계열사 배당 및 보유 부동산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기자본을 꾸준히 확충하며 성장잠재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대신증권은 고객 친화적인 정책과 시장 환경에 맞춘 금융상품 판매 전략으로 브로커리지 시장 점유율 확대와 자산관리 부문의 성장을 동시에 달성했다.

‘7일 이내 신용융자 이자율 0%’ 정책을 통해 브로커리지 고객 유입을 대폭 늘리는 한편 채권 판매와 같은 금융상품 판매 전략도 주효했다. 대신증권은 시장 환경에 맞춰 적극적으로 채권 판매에 나서며 지난해 9조 원의 채권을 판매했다. 이 같은 채권 판매 등 리테일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고객 총자산이 100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대신증권은 우발채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부동산PF 등에 대응했다. 부동산PF 부실의 문제로 떠오른 ‘브릿지론’은 전체 PF 규모의 10%에 불과했다.

지난해 차액결제거래(CFD)는 고객

과 회사 모두에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서비스 출시 직전 도입을 철회했다. 대규모 손실을 일으키고 있는 추가연계증권(ELS)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현재 발행액 기준 전체 시장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지난해 CFD, ELS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리테일 호조... 고객 총자산 100조 종투사 지정요건 자기자본 3조 충족 리츠 상장 등 사업 다각화 적극 추진

◆ 새로운 도약 준비

올해 들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종투사와 비종투사 간 실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신증권도 올 3분기 누적 연결 영업이익, 순이익이 각각 1129억원, 108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 25.4% 감소했다.

이에 대신증권은 최근 종투사 도전에 다시 나서며 사업 다각화에 적극적이다. 종투사로 지정되면 신용공여 한도

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늘어나면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넓어진다. 헤지펀드에 자금 대출이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이빗브로커리지서비스(PBS)와 외화 일반 환전 업무도 가능해진다.

종투사들이 꾸준한 자본금 확충을 통해 사업 다각화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 대표 역시 종투사 신청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은 지난 3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해 자기자본 2300억원을 확보해 종투사 지정 요건 자기자본 3조원을 충족한 바 있다. 앞서 추진하던 본사 사옥 매각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중단한 대신 이 건물을 기초로 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상장을 추진 하는 등 자본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대신증권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을 경우, 국내 10번째 종투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단순히 새로운 사업 기회 확보를 넘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프로필

1963년 출생
1988년 경희대 경제학과 졸업

1987년 대신증권입사
1999년 대신증권 마케팅부장
2003년 대신증권 인사부장
2007년 대신증권 재무관리부장
2009년 대신증권 리스크관리본부장
2011년 대신저축은행 상무이사
2013년 대신저축은행 대표이사
2019년 대신증권 부사장·경영지원총괄 겸 IB사업단장
2020년 3월 대신증권 대표이사(現)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꼭 필요합니다

안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보관 중인 고준위 방폐물은
고준위 방폐장에 모아서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특별법 제정이 시작입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고준위 방폐장 개념도